

전남 아동 삶의 질 전국 최하위권... 광주는 4위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 연구 결과 발표... 인구 유출·저출산 악순환 초래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대도시와 인접 도 지역에서 아동 삶의 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세종,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 지역과 경북, 전남, 강원, 전북, 충남 등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전국 시도 중 4위를 기록한 반면 전남은 1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낮은 아동 삶의 질은 인구 유출, 저출생 심화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와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4~5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각 2500명,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환경,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43개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아동 삶의 질 지수(CWBI-Child Well-Being Index)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117.38)이었다. 세종(116.40), 대구(110.92), 광주(109.43), 울산(106.79)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2위였던 부산은 건강과 아동의 관계, 주거환경 등 3개 영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1차 연구에서 1위였던 대전은 10위로 하락하고 10위였던 광주는 4위로 상승하는 등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지리적 위치가 가깝더라도 대도시와 도 지역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어 지역별 사회지표나 사회서비스 현황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격차가 아동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충남(82.24)은 가장 낮았고, 전북(85.67), 강원(91.90), 전남(92.23)도 8개 영역 대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도 지역은 대부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아동의 낮은 삶의 질이 인구 유출 또는 출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쳐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생 시대,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간 편차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과 아동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인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의 평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아동 지원을 늘려 아동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실과 함께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 삶의 질과 지역 격차 대응 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대구·대전보건대 '한달빛 글로벌대학'으로 뭉쳤다



광주와 대구시, 대전시, 광주·대구·대전 보건대학교 관계자들이 2일 대구시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글로벌대학30 본지정 목표

교류 확대·전문인력 양성 협약

광주와 대구시, 대전시는 글로벌 대학 30 본지정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대구시, 대전시는 2일 오후 2시 대구시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한달빛'은 한발 대전, 달구별 대구, 빛고을 광주를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공모에 전국 유일 초광역 연합모델 유형으로 신청한 광주보건대학교와 대구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총장과 광주·대구·대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은 3개 보건대하

교가 연합해 결성한 단일 협치(거버넌스) 사업으로, 전라도·경상도·충청도를 아우르는 최우수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으로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전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또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을 설립해 단일 의사결정 연합스쿨을 운영(입시·교육과정·학사 등)하고, 지역특성과 캠퍼스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보건대는 메디휴먼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늘·돌봄 특화캠퍼스를, 대구보건대는 소재 기반 바이오헬스의 헬스케어 특화 캠퍼스를, 대전보건대는 디지털·바이오 치료제 산업을 활용한 바이오·재활 특화캠퍼스를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의 전문대학 모델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은 올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20개교 중 3개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는 초광역 연합 모델로, 글로벌대학 지정 사업의 취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본

지정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은 물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와 대학 간 적극 교류·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자체-대학 간 상호교류 확대와 행정·정책적 지원 ▲지역산업기반 맞춤형 특성과 인재 육성 등이다.

김동현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장은 "글로벌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혁신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광주보건대가 대구·대전 보건대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특광역시 최초 '당직 근무제' 폐지

8월부터 재난상황실과 통합 운영 KT와 협업 AI 당직 시스템 구축

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당직 근무제를 폐지한다. 당직근무 폐지는 직원의 업무·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재

난 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충원해 당직 근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은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당직 민원과 재난 대응 업무를 병행해 처리한다. 그동안에는 4급 이하 전 직원이 순번에 따라 밤새 근무해왔다.

광주시는 KT와 협업해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집에서 의료·돌봄' 전면 확대

취약계층 사회 복귀·정착 지원

전남도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기존 시범 운영 중인 6개 시·군에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돕기 위해, 퇴원 후 집에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의 의료급여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 조

사 및 상담을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관리사, 병·의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의료·복지 필요도가 반영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71만원 상당의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필수급여와 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복지 용구 등 선택급여를 제공한다.

고흥군은 대상자 필요도 평가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서비스 제공기관 및 공적자원을 연계해 의료기관 동행 방문,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을 지원해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3급 7명·4급 18명 등 245명 승진

광주시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급 7명, 4급 18명, 5급 29명 등 총 245명을 승진 의결했다.

<명단 21면>

퇴직 준비 교육, 명예퇴직 등 결원에 따른 것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 동력 확보,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김동현 대학인재정책과장, 김성배 문화정책관, 신동하 대변인, 이승규 신활력총괄관, 이영동 비서

실장, 정현운 주택정책과장, 백남인 도로과장 등 7명이 국장급인 3급으로 승진했다. 또 보육, 인사, 홍보, 공공기관 혁신 등 현안 부서에서 성과를 낸 4명은 4급 발탁 승진자에 포함됐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반영해 낮은 연차 공무원의 승진 기회도 확대했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자 4급 이상 진보에 이어 오는 19일까지 5급 이하 전보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